

연 중 제19주일

기도서 P. 409 A해

제1독서 (열왕상 19, 9^a. 11-13^a)

제2독서 (로 마 9, 1-5)

복 음 (마 태 14, 22-33)

숲 정 이

발행 천주교 전주교구
편집 사 목 국
인쇄 관 리 국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560-6

전주 교구청

☎ ③ 5098 ③ 3201

□ 강 론



『예수 마리아』

범 영 배 신부

내돈! 내돈!

발악을 하며 외쳐대는 절규. 그는 돈을 잔뜩 움켜 잡고 있었으며, 심지어 베게속에도 돈을 뭉땅 집어넣고 있었다고 한다. 이 광경은 교통사고 때문에 죽어가는 어느 구두쇠의 이야기이다.

또한 우리 주위에는 위의 구두쇠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돈이면 세상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구두쇠들이다. 돈이라는 현대의 유행에 역매여서 끈작을 못한다. 때문에 잃을것도 별로 없는 신문의 사회면이 너털사건으로 우리들을 경악케 한다. 이러한 생각때문에 깨끗한 선거라고 계속 주장하지만, 우리의 체험을 통해 좌철을 맛보아야 했다. 심지어는 주님의 축복을 청하면서 현대의 유행에게 홀리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택일택시(擇日擇時)를 한다고 많은 돈을 들이고서 신부(神父)에게 꼭 시간맞춰 와달라고 애걸아닌 강요를 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역풍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유행으로 본것처럼 우리들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몰라보고 현대의 유행인 물질에 의존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라”(마태 6, 31)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필연적으로 현대의 유행이라고 하는 돈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에게 배풀어 주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갑자기 당하는 어려움이나 교통중에서도 주님의 도움을 청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또한 주님을 망설이지 않고 알아 보며 부를 수 있어야 한다.

죽음이 임박한 어느 할머니께서는 신음소리 대신 들릴락 말락한 목소리로 “예수 마리아”를 부르며, 목주를 두 손에 움켜잡고 있다. 진정 이문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유행이라고 외치지 않고, “주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외치면서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일 것이다.

우리들은 항상 우리에게 갑자기 나시는 주님을 알아보고 외치며 매달리는 신앙을 가지도록 해야한다.

(창인동 천주교회 보좌신부)



멋지게 살자!

특히 여름철이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어처구니없게도(?) 우리의 걸을 쉽게 떠나버리곤 한다. 갖가지 어려움을 이겨내고,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신망하는 대학교까지 입학하였어도 그를 아끼는 부모나 친지들의 소망을 내팽개치고 우리의 걸을 떠나버리고 만다. 오늘 잠깐 쉬면서 대자연 안에서 무언가를 배워오겠다던 그를 이제는 우리의 걸에서 찾을 수가 없다. 다만 부모의 아픈 가슴속과, 가끔가끔 떠오르는 친지들의 아스라한 기억속이나 머물러 있게 되고 만다.

서로, 헤어진다는 것은 꽤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살벌이의 경우에 더욱 그러하고, 밤을 지새우며 이마를 마주했던 친구들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그러나 우리의 이 세상 삶은 우리의 뜻대로만 할 수는 없다. 무한한 섭리 안에서, 만남은 헤어짐을 가져오게 된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헤어짐을 전제로 한 만남인지도 모른다. 그렇다고해서 헤어짐이 헤어짐으로만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정말로 아쉬울 수 밖에 없다.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항상 기도 가운데 만날 수 있다. 또, 먼 훗날 함께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적인 면에서의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위안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웃들의 죽음에서 우리는 배울 것이 많다. 내일의 시간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오늘 죽을 것 처럼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웃에게 빚을 남기기 보다는 무언가를 주고 가야 한다. 갚아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은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그래서 어릴이의 죽음은, 인간적인 면에서의 아쉬움은 커도, 복된 죽음이 아닐 수 없다.

하나라도 남에게 주면서 멋지게 살자.

숲 정 이 산책



불가능은 없다

□공의회 의 가르침



교회내의 마리아 공경

지극히 자비로우시고 지혜로우신 하느님께서 세상의 구원을 원하시려고 “기환이 왔을 때에 당신 아들을 보내시어 여인에게 태어나시게 하셨으니…그것은 우리에게 아들이 되는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다.”(갈라 4: 4-5)

“그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신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셨다.”

이러한 구원의 신비가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계속되는 것이며 주께서 당신 몸이 되도록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 안에서 신 들은 머리가신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그 신도들과 교류하는 것이니 먼저 우리 주 천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이시며 영화로운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를 생각하며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동정 마리아는 천사의 아뢰를 들으시고 하느님의 말씀—성자—을 마음과 몸에 받아들여시어 생명의 생명을 세상에 낳아 주셨으므로…하느님이신 구세주의 참 모친으로 인정받으시고 공경받으시는 것이다. 마리아는 아드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뛰어나게 구원되고 아드님과 불가분의 관계로 긴밀히 결합되었으며 천주 성자의 모친이 되는 직무와 품위를 갖추셨다. 그러므로 성부의 가장 사랑하시는 딸이 되셨고 성신의 궁전이 되셨으며 이렇게 탁월한 은총 때문에 마리아는 천상 천하의 다른 모든 피조물을 멀리 초월하신다. 그러나 마리아도 구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아담 혈통에 결합되어 제 실 뿐더러 “참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들의 어머니시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사랑으로써 교회 안에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들로서 신도들이 태어나도록 협력하셨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마리아는 교회의 가장 뛰어나고 가장 독특한 지체이며 신앙과 사랑의 명백한 전형과 모범으로서 찬사를 받으시는 것이다. 따라서 가톨릭 교회는 성신의 가르침을 받아 마리아를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로 받들며 그에게 자녀다운 효성을 바치는 것이다.

하느님의 은총을 힘입어 성자 다음으로 모든 천사와 사람들 위에 들어 높임을 받으신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신비에 참여하신 지극히 거룩하신 천주의 모친으로서 교회의 특별한 예식으로 공경받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실 복되신 동정녀는 오랜 옛적부터 “천주의 모친”이란 칭호로 공경받으시고 신도들은 온갖 위험과 아픔 속에서 그의 보호 밑으로 들어가 도움을 청한다.

“이제로부터 과연 만세가 나를 복되다 일컬으니 능하신 분이 큰 일을 내게 하셨음이라.”(루카 1: 48) 하

신 마리아의 예언대로 특히 에페소 공의회 이후로 하느님 백성의 마리아 공경은 존경과 사랑과 기도와 모방에 있어서 놀랄을 정도로 발전하였다. 교회 안에 언제나 있었던 이같은 마리아 공경이 비록 온전히 독특한 것이기는 하나, 혈육을 취하신 말씀인 성자가 성부와 성신과 함께 받으시는 흠숭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며 그 흠숭에 오히려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진전한 통통 교리의 테두리 안에서 시대와 장소의 조건이나 신도들의 기질과 품성에 따라 교회가 인준한 성모 신심의 여러 형태는 성모가 공경을 받으심으로서, 성자가 옳게 이해하시고 사랑과 영광을 받으시며 성자의 계명이 준수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은 성부께서 성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골로 1: 15-16) 성자 안에 모든 충만함이 머물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골로 1: 19)



“…그럼,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마르코 10: 17-27)

구원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느냐고 묻는 청년에게 예수님의 답변이 무척이나 당황케 한 것은 바로 그 청년은 부자였기 때문이었죠.

물질이 인간의 마음을 얼마나 흐리게 하는지요, 사실 세상에 일어나는 거의 모든 불상사는 금전관계와 물질적 욕망 때문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런대도 사람들은 자기가 먹고 쓰고 남은 것조차도 남에게 주기 싫어합니다. 죽어서 가져갈 것도 못되는 많은 물질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이 사랑의 실천인 것을 모르려 없는 많은 부자 아저씨들은 무엇을 목적으로 모으기만 하는 것일까요?

남을 돕는다는 참다운 의미는, 나의 필요까지도 희생할 하려 할 때 바로 진정한 도움의 흐릿함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하물며 먹고 쓰고 남은 것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내가 먹고 마시고 그리고 남은 것으로 남을 도와주려면 한번도 못 도와 줄 것입니다. 도움의 참뜻은 그로 하여금 다시는 도움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닐까요.

귀가 어두운 분께 보청기를 권합니다
의료 과학 기계 시약

東南醫療科學器械商社

전주시 서노송동 639~40
(중앙성당 옆)

☎ ③ 6900 야간 ⑥ 0496

金 樂 均(요섭)

여름철에는 값이 쌉니다

순 누에고추 100% 이불솜

하 이 실 크(眞)

자매품

슈 퍼 실 크(元)

순명주(SILK 100%) 보증표를 확인하세요

제 조원 海星製綿工業社

전주시 금암동 678(덕진경기장앞)

소 루 가(秉乙) 전화 ③9045

建設部登録 測量設計業

大 路 技 術

代表 金 鍾 淳(베드로)

全州市 中央洞 1가 36~13

(명동여관 뒤편) 전화 ③3606

1. 土地形質變更 측량설계
2. 住宅建設團地 "
3. 都市計劃施設決定(학교등)
4. 國公有地占用許可 측량설계
5. 其他各種土木工事의 측량설계

사목국장(김봉희 신부) 귀국

지난 5월 26일, 독일 마인즈 교구 초청으로 선교대회에 참석차 떠났던 김봉희 신부와 조성호씨가 일정을 마치고 7월 31일자로 귀국했다.

황등본당, 전자오르간 구입에 열성

황등 본당(주임신부 강덕창)은 성당 내부시설 보완 및 조정사업을 마치고, 전례음악을 통한 신앙심 고취와 능동적 참여를 꾀하고자 전자오르간 구입의 꿈에 부풀어 있다. 이리시에 인접한 이곳은 쌀, 고구마의 주산지이며 썩돌과 석공은 전국에서 제일가는 곳이다.

「이리 성모병원」 신축사옥으로 이전 진료



나병(癩病)의 조기 발견과 진료, 계몽, 지역민의 보건위생에 수고를 아끼지 않던 「이리 성모병원」이 더 좋은 여건속에 봉사하고자 마련한 새 집으로, 지난 8월 3일 이전하여 진료를 하고 있다.

1960년부터 교구 관내에서 나환자를 위한 의료사업을 시작하여 오던 중, 72년도에 구라사업을 인수받은 동정 성모회(병원장 송크리스티나 수녀)에서는 많은 단체의 후원으로 이리시 영등동에 연건평 676평(대지 1,600평)의 새 병원을 마련했었다.

현대식 건물에 병상수 40개의 최신 시설과 규모를 갖춘 동 병원은 22명의 직원(의료진과 용인)이 내과·피부과·소아과의 진료를 하고 있다.

동정성모회 수녀 10명이 작은 공동체를 이뤄 생활중에 봉사하는 이 병원은 나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희생을 안겨줄 것이다. (참고: 병상 20개는 나환자 전용)

일반환자 병동과 나환자 병동으로 구분하여 진료하는 이곳에 불편한 이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

영

(축)

명

박진량·범선배·전대복(라우렌시오) 신부님-8월 10일

축하를 드리고 기도중에 기억하자.

요심이 (418) 김병오

당신이가짜 총재의 대출전화지사로...

2억5천만원들 불법인출해주었으? 그렇소

우리 할아버지 사돈이 정부고위층에 있는데 사이다 사머들돈 5백만원만 대출해주쇼

이수표 가져가시고 잘봐달라고...

□ 보건 향상

※ 교우 여러분을 성심껏 모시겠습니다

범모약국

김영춘 (아오스당)

전화 ③ 5319

범모약국

전고←

→팔달로

↓구역진

가틀릭

토롱진액 판매 안내

토롱진액 개발에 따라 성모병원 3층에서 아래 장소로 이전 판매하니 애용하시어 건강회복 하시기 바랍니다
※ 종래보다 18배의 효능

성분	토롱탕	토롱진액	가탕	1회진액	1회	생토롱
분	조단배 10.4%	조단배 175%	격	1.000	3.000	1kg 18.000

(본 판매업을 희망하지는분은 문의 바람)

한국토롱식품공업사 전남·북지구 대리점

전화 ②2301 ②6545 ②1179 경원동 1가 110-4

아카데미상가 뒤, 안산부인과 옆(전화주문 배달함)

유덕열(스테파노) 유종현 배

광고문의은

③ 5098로

X선검사-일반촬영, 특수촬영, 종합검사는 X-ray전문의원을 찾아주세요

군산방사선과의원

원장-방사선과 전문의

오종현(프란치스코)

군산시 중앙로 1가85-2

(시청 정문앞 이성당 2층)

전화 ② 4331 · ②2275

※ X선 TV, 자동 현상기 등 최신기계 도입



1. 중·고생 심심단체 지도연수회(셀·레지오 마리에·젠): 8월 11일 오전 9시 가톨릭센터 강당
2. 중·고생 심심단체 임원연수회(셀·L.M·젠): 8월 13일 오전 9시 가톨릭센터 강당
3. 농촌 부녀자 교육: 일시-8월 18일~20일
4. 문화강좌: 일시-8월 22일 오후 7시 30분, 주제-현대문학을 보는 시각
강사-오학영(서울여대 교수)-회복 작가
5. 제1지구 사제 모임: ① 일시-8월 10일 10시30분 부안에서 출발(2박 3일)
② 장소-백산해수욕장 전대청 휴양소 ③ 참가비-2만원
6. 전대북(라우렌시오)신부 영명축하 행사 및 축하연 없습니다

(중양)

전화 ③3651번
3874주임 신부 문정환
보좌 신부 유종인
사도 회장 박병규※ 8월 24일은 본당신부님의 영명축하일입니다
건강하시어 많은 일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1. 꾸리아 월례회: 오후 2시 강당
2. 주일학교 어린이 영세: 8월 14일 어머니미사에 (10시 30분) 대부도 동반하여 10시까지 강당으로 집합
3. 첫 영성체: 몽소승천 대축일(8월 15일) 공식미사중에
4. 금요 성서연구: 제3호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제1호 2호 답안지를 가져오셔야만 제3호를 드립니다
5. 미사시간 안내: 8월 15일은 성모승천 대축일입니다
미사시간은 주일과 같습니다. 어린이미사 4시30분
6. 중·고등학생 첫영성체 종합교리: 8월 10~15일까지
매일 저녁 8시 박신부님 방에서
7. 중·고생 심심단체 지도자 연수회: 8월 11~13일 가
톨릭센터, 대상-셀 지도위원, 젠 지도자
8. 중·고생 심심단체 임원연수회: 8월 13~14일 가톨
릭센터, 대상-셀 의장, 학생회 간부
9. 중·고생 교리경시대회: 8월 23일
10.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지난주 봉헌금: 493,725원

(노송동)

전화 ⑦7032번

주임 신부 김정원
사도 회장 박준근

1. 축! 몽소승천대축일: 15일<토> 이날 미사는 주일과
같습니다. 오전 10시미사중에 첫 영성체식 있습니다
2. 제20차 성령세미나: 17일<월>~22일<토>까지
매일 오후 8시~10시까지,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3. 축! 영세식: 14일<금> 오후 4시, 영세대상자는 13일
까지 영세신청서를 제출바랍니다
4. 꾸리아 회합: 오늘 오후 2시,
각 팀의 간부님들의 빠짐없는 참여를 바랍니다
5. 성모화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6. 베소라 성서강의: 매주<화> 오후 8시~10시까지
7. 금주의 성경읽기: 신약의 마르코 복음서 전체
8. 성령기도회: 매주<금> 오후 2시~4시까지
직장인들은 매주<금> 오후 8시부터
9. 신우회 월례회: 오늘 저녁미사 후
10. 성가정회: 매주<수> 저녁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336,215원

(덕진)

전화 ②2182번

주임 신부 서석도
보좌 신부 유영도
사도 회장 양상열

1. 주일학교 교사님들 특별교리: 수고하셨습니다
2. 오늘은 애령주일입니다
먼저간 선영들의 영혼을 기억하고 미사봉헌 합시다
3. 유아세례: 9월 4일 오전 10시까지, 사무실에 신청
4. 견진성사를 받지 않은분: 31일까지 신청하세요
5. 중·고생 수련회 사진 찾아가세요: 1장에 150원
6. 성모회 모임: 오늘 할머니들 꼭 참석하세요
7. 교리교사 위로여행: 지리산(10월~13일)

□ 지난주 봉헌금: 419,320원

(복자)

전화 ⑤5238번

주임 신부 김희복
보좌 신부 김희복
사도 회장 조성호

1. 성모승천 대축일: 15일<토> 미사 주일과 같음
2. 학생회 하기 특별교리: 10~14일 오후 4~6시
중·고등학생들은 빠짐없이 나오세요
3. 어머니 성가연습: 10월~14일까지(저녁미사 후)
4. 봉헌금 미수되신 분은 속히 완납 바랍니다

5. 성당 대청소: 14일
6. 성우회 월례회: 공식미사 후(유덕열·김방웅형제대)
7. 다음주 전례: 허노사, 독서-①장성식 ②박의원
신자들의 기도는 전례담당이 준비 바람
제물봉헌은 독서하신 분이 봉헌함
8. 자모회 모임: 8월 10일<월> 어머니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319,370원

(서화동)

전화 ③2276번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한영수

※ 축!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시간 새벽 5시30분

- 공식 10시, 밤 8시
1. 첫영성체 교리: 중·고생 매일 오전 9시~10시
국민학생 매일 오후 4시~5시
2. 성심회: 매일 11일 오후 2시
3. 반장님 회의: 공식미사 후
4. 꾸리아 모임: 9일<월> 오후 2시 회의실
5. 중·고생 수련회·주일학교 하기특별교리: 협조에
감사합니다
6. 정화사업 헌금: 장귀례(1만원), 고동준·이공임(각
5천원), 이상태·정정순(각3천), 누계-1,207,000원
7. 다음주 전례담당: 독서-①김나선 ②이희옥

□ 지난주 봉헌금: 177,710원 교무금: 63,000원

(꽃정리)

전화 ⑦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수·유·⑨9567 사도 회장 이강노

1. 성모승천 대축일 15일(토) 미사시간: 아침 5시 30분
공식미사 10시, 오후미사 7시30분(주일과 같음)
2. 성모화 월례회: 8월 16일 공식미사 후
3. 중·고등학생 교리안내: 8월23일 교리경시대회 대비
교리-8월10일~22일, 매일오후 4시~6시, 성경지침
4. 첫 영성체식: 8월 15일 오전 9시
5. 성모승천 성가연습: 10일~14일, 매일 오후3시~4시
6. 주일학교 하기교리: 교사님과 후원회 자모님께 감사
7. 차주 전례담당: 해설-이철수
독서-①박병열 ②남상용, 기도-김중환

□ 지난주 봉헌금: 319,640원

(전동)

전화 ③3222번

주임 신부 김병엽
보좌 신부 박병준
사도 회장 이종두

1. 각 심심단체: 자모회(공식미사후), 장우회(저녁미사
후), 성화회(다음주 공식미사후)
2. 미사에절 진행
아침미사: 해설-박종구, 독서-① 법덕배 ②최병래
공식미사: 해설-양경배, 독서-① 김병오 ②백종흠
저녁미사: 해설-김윤주, 독서-① 이인홍 ②정양수
3. 성모승천 대축일: 15일(토) 미사시간 주일과 같음
4. 첫영성체 교리: 10일부터 1주일간, 오후 5시에 교리
첫영성체 일자: 8월 15일
5. 주일학교 하계교리에 협조 감사합니다
간식-양현웅, 청창회, 이양자, 신일균, 파티마의
성모Pr, 대전선협, ※ 기타-41명
6. 중·고생, 청년 하기수련회: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파티마)

전화 ③0915

주임신부 김영일
사도회장 채수현

1. 꾸리아 회합: 오늘 오후 2시
2. 중·고생 하기수련회: 성원해 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3. 교고생·대학생 1일피절: 김동준 신부님 감사합니다
4. 어린이 하기교리: 교리교사님 감사합니다
5. 어린이 첫교백 및 첫영성체: 11일 오후 5시
6. 성모승천 대축일: 15일<토>

□ 지난주 봉헌금: 159,195원 교무금: 152,000원